

# “공공기관 채용비리 여전하다”

유성엽 의원, 기재위 국감서 “제도적 개선방안 고민 없이 지난 사건 덮기에 급급… 시험 결과 공개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우·고창, 민주평화당·사진)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의 만연한 채용비리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지난해 말 관계부처 합동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조폐공사 등에서 채용비리 실태가 적발된 것이다.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는 ‘고위인사 지사로 자격요건 미비자를 서류심사에 통과시키고 이후 부당하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특채 채용 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장이 사임하고 사정당국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정보유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재정정보원도 ‘유효하지 않은 자격증 및 채용자격 기준으로 서류심사를 통과 한 사례가 적발되어 관계자가 징계를 받았다’.

또한, 한국조폐공사는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고졸전형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 공고문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3명을 합격시키는 등 부당 채용 한 사례가 적발되어 관련자 2명이 자체 징계인 ‘불문경고’를 받은바 있다.

유 의원은 “세 기관 공히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과정과 절차를 무시

한 전형적인 비리행태를 선보였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이 보인 행태는 단순 실수의 차원을 넘어서 범죄행위에 가깝다”면서 “부적격자가 합격을 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떨어진 수많은 지원자들에게 기회를 박탈한 행위에 비해서 ‘경고’ 등의 징계로 끝낸 조치는 매우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유 의원은 “최소실 정유라 사건이 도화선이 된 촉불혁명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는 공정사회였다”고 정의하면서 “현 정부의 기관장들은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것’ 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철학이 공공기관의 채용과정과 절차에 실제 녹아들어갔는지, 제도적으로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공공기관의 채용절차 즉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시험 결과를 단계별 개인별로 모두 공개함으로써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게 될 것”이라며 투명성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김진성 기자



“질의하면 안됩니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오우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순서에 덧붙여민주당 김경철 김정우 의원이 정성호 위원장에게 감사초지를 요청하고 있다.

## 김관영 의원, 민원인의 날 군산지역 이등고충상담실 운영

김관영 국회의원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민원인의 날과 찾아가는 이등고충상담실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8월부터 매주 토요일 실시하는 이등고충상담실은 지난 13일까지 모두 10차례 진행했으며 3백여명의 주민들의 109건의 상담을 했으며 이중 67건의 민원을 해결했다.

특히 여름철 기습적인 폭우로 군산 지역 일대 침수피해를 입은 곳곳을 돌아보며 복구를 위해 노력했으며 최근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국내에 상륙했을 때 모든 보좌진들을 침수피해 지역 곳곳에 보내 지역 내 피해 상황을 실시간 확인했고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전력을 다했다.

김 의원은 “군산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상임위로 선택했다”며 “바른미래당 원내 대표로서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농협 직원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0% 특혜

정운천 의원, “2.87% 이자 보전 현금으로 지급… 2008년 이후 10년간 총 393억원 지원”

농협이 소속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이자에 대한 페이백 (payback)을 통해 0%대 특혜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 전주시울·사진)이 농협으로부터 받은 ‘임직원 주택구입자금 융자 및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소속 직원 주택구입자금 대출건에 대해 2.87%의 이자를 보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실제 이율이 2016년 기준 0.13%, 2017년 기준 0.2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지난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7년 도 대출건 기준 이자 보전 금액이 40억 원 수준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0년 간 지원액이 3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이렇게 혜택을 본 직원은 총 4,305명에 달한다.

지급방식은 직원이 1년동안 납부한 대출이자를 차년도에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자 보전 기간은 총 10년으로 한도인 1억 원 기준으로 1년 287만원, 10년 동안 2,87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는 것이다.

농협의 존립목적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농민들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은 고사하고, 농협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금리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대출금리를 직접 깎아준다

는 특혜 시비를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금리를 적용하고, 추후 별도 예산을 통해 이자를 보전해주는 눈속임을 해왔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정운천 의원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막대한 대출이자 부담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농협 직원이 0%대 특혜 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모럴헤저드”라고 지적하면서, “농촌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서, 농민들의 지원조직인 농협이 농민들보다는 임직원들에게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향후 농협은 그 존립목적에 맞게 임직원보다는 농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의회 의정 중계석

### “거꾸로 가는 전북도 여성정책 개선을”

홍성임 의원, 도정질의서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 시행

여성정책관실 도입·여성정책관 선발해야” 주장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관련 갈등 매듭 촉구도

전북도의회 홍성임 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사진)이 16일, 열린 제 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도정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홍성임 의원은 도청 내 굳건한 유리전장을 지적하며 여성공무원의 동등한 승진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전라북도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 등의 제도를 적극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도내 여성정책 활성화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부지사 직속의 여성정책관실을 도입하고 여성정책관을 개방형 직위로 선발해 분산돼 있는 여성 관련 조직을 한데 모아 여성정책관이 전라북도 여성정책 전반을 아우르며 체계적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북 전역에 가야, 백제, 후백

제, 조선의 역사 문화유산이 가득해 ‘살아있는 박물관’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전북도가 이를 관리하고 발굴 보존하는 콘트론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대 가야사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유산을 담당할 전담부서 설치(가칭 가야백제 문화탑)와 전문인력 인 학예연구사를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홍성임 의원은 전북이 동학농민혁명 운동의 발원지임에도 불구하고 14년간 기념일조차 정하지 못하는 등 무능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하며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관련 갈등을 조속히 매듭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성임 의원은 “도의회가 된 후 전라북도 여성정책 전반을 두루 살펴 보면서 여성정책이 예전보다 후퇴된 것에 안타깝고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추진하는데 있어 전라북도 93만명 여성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전라북도 여성정책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밝혔다. /김진성 기자

## 농협중앙회 출신 퇴직인사 자사계열사 재취업 ‘비일비재’

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 등에… 올해만 25명

김종희 의원 “낙하산 인사 포진 인사검증 철저해야”

농협중앙회 출신 퇴직인들이 자사 계열사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재취업증가추세는 이어나가고 있으며 밥그릇 쟁기, 제 식구 감싸기에 열중하며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희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1~2018년까지 농협중앙회 출신의 퇴직인사가 자사계열사인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에 재취업하는 수가 12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계열사로의 낙하산 인사는 해마다 증가하였는데 2011년 2명, 2012년 6명, 2013년 14명, 2014년 14명, 2015년 11명, 2016년 18명, 2017년 31명, 2018년 25명으로 해가 지날수록 증가세를 이어나

갔다. 상위 직급별로 보면 대표이사료만 무려 47명이 재취업했다. 이어 부사장 12명, 전무32명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사장과, 이사, 상무, 상근감사, 상임감사, 비상무이사, 사외이사, 사원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특히 이들의 연봉과 성과급을 합한 금액은 2017년 기준 평균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희 의원은 “연봉은 높고 전문성은 낮은 낙하산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라며 “우리 국민의 상식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급 차입금, 이자등 농협의 경영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다. 농협의 현재를 타파하고 미래를 만들어 나갈 유능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철저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2018 **변산** 노을축제

10월 20(토)~21(일) 변산해수욕장 일원

2018 변산 노을축제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배경으로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가 멋지게 어우러진 가을철 부안군 대표축제입니다.

놀거리 : 가족단위 캠핑, 노을사진 찍기, 맨손 전어잡기·무료수마 등 체험활동  
볼거리 : 변산노을, 불꽃놀이, 기념공연(출연:변진섭, 김학래 등), 영화 상영(변산)  
먹거리 : 특산물 전시 및 시식

부안군